www.ibita.or.kr
IBITA STORY
IBITA
International
Beauty Industry
Trade Association
ASSOCIATION OF TRADE FOR INT'L BEAUTY INDUSTRY
www.ibita.or.kr
IBITA 헤드라인
제2017-03호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IBITA) 세계 3대 화장품 미용 박람회

"이태리 코스모프로프" "북미 코스모프로프" 해외 유망박람회로 정부지원 선정 확정 한국 뷰티산업계 IBITA 쾌거.

IBITA관 2016 "홍콩 코스모프로프" 추경 정부지원으로 진행해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IBITA(이사장 윤 주 택)는 2018~19년도 "이태리 코스모프로프", 2017~19년도 "북미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 가 정부지원 해외 유망박람회로 IBITA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으며 2018년부터 이태리 코스모프로프는 KOTRA와 IBITA가 공동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100여개 참가사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명실공이 세계 3대 뷰티화장품 박람회모두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IBITA에서 정부지원 전시를 주관하며 한국 뷰티산업계가 글로벌 해외시장에 전문적인 무역진흥 확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북미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 박람회' 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정부지원 해외 유망박람회 선정이 확정되어 국내 우수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특히, '2016홍콩 코스모프로프 아시아' 는 정부지원 추경 해외전시회로 선정되어 기존 KOREA-IBITA관 참가사들에게 임차, 장치, 물류비등을 정부지원 혜택으로 큰 성과를 거두며 성황리에 막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는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지원 확대를 위해 해외 네트워을 활용한 경제 협력 지원사업 및 산하법인인 한국뷰티산업무역원KBITA와 협력을 통한 전시와 무역 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오고 있다.

한국 단체관(KOREA-IBITA)을 주관한 이래 매년 규모를 확장하여 참가 6회째인 이태리코스모프로프는 총 6개의 섹터(30홀 국제관, 19홀 프라임존, 프로페셔널 에스테틱 전용관 14홀, 18홀 코스모팩관, 16a홀 프레미엄 IBITA전용관)에 IBITA관이 구성되어 예년보다 대규모 확대된 70여개사 한국 기업들이 KOREA-IBITA관에 참가하여 대한민국의 우수한 뷰티 화장품 제품을 전세계에 알리게 되는 장이 될 것이다.

협회 관계자 말에 따르면, 이번 2017년 이태리 코스모프로프에서 주목할 점은 "올해로 이태리 코스모프로프 50주년을 맞는 주최측과 협의하여 IBITA 한국관을 위해 좋은 위치에 16a홀을 IBITA 전용관으로 확장하여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박람회인 이태리 코스모프로프에 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로써 전체 IBITA관에 70여개사가 넘는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고 전하며 "2018년도부터는 해외유망박람회 정부 지원으로 확정 선정되어 KOTRA 와 IBITA가 공동 수행하는 만큼 더 많은 참가사들이 참가지원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타 해외전시 및 "이태리,홍콩,북미코스모프로프" 세계 최고의 3대박람회 시리즈 참가를 원하시는 업체분들은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IBITA 해외전시팀 : 02-861-8084~7** 로 문의하면 된다.

CONTENTS

01 IBITA 헤드라인
02 IBITA ISSUE
03 IBITA 정부지원 박람회
04 IBITA 중국(홍콩) 박람회
05 ASEAN 지역 박람회
06 중동 지역 박람회
07 중동 지역 박람회
08 남미 국가 박람회
09 터키,러시아 박람회
10 ISSUE Photo & Preview
11 ISSUE Photo & Preview
12 2017년 박람회 일정

사단법인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한국뷰티산업무역원
발행인 : 윤 주 택 | 편집 : IBITA홍보기획실
이메일 : ibita@ibita.or.kr | 전화 : 02-861-8084~7 | 팩스 : 02-6280-3368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43-1 대성 디-폴리스 지식산업센터 B동 1302-2

IBITA & K-BITA와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를!
- 해외전시회/박람회 - 해외시장개척단 - 국내외 투자사업설명회 - 국제컨퍼런스 - 세미나 - 해외 로드쇼
- 해외마케팅 컨설팅 - 홍보PR/부스디자인 설치 - 해외여행/운송 - 수출상담회/바이어매칭

'2017 IBITA in-cosmetics Korea Award 진행'

2016, 2017년 연속 Reed Exhibitions와 in-cosmetics korea IBITA award 진행 전격 합의 대상업체 신청 접수중

- 작년 수상기업 '아모레퍼시픽, 대봉엘에스, 대덕랩코, 탈모닷컴' 전 세계적으로 홍보 마케팅 효과 톡톡히 누려 -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이사장 윤주택)는 지난 2017년 2월 9일,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세계적 글로벌 전시 주최사인 Reed Exhibitions의 in-cosmetics Korea 담당자와 미팅을 통해 화장품 원료 전문 전시인 'in-cosmetic Korea' 의 한국파트너로서 상호간의 협약을 통해 2번째 에디션인 'IBITA in-cosmetics Korea Award 2017' 을 전격 재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본 시상식은, 다가오는 6월 22일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in-cosmetis Korea 2017' 박람회와 각종 화장품 전문 컨퍼런스 및 세미나와 함께 거행될 예정이다.



2016년 in-cosmetics Korea Award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윤주택 이사장은,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IBITA in-cosmetics Korea Award' 시상식을 개최하면서 공정한 심사와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우수한 뷰티 기업에 상을 수여함으로서 본 시상식을 통해 한류를 전 세계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 것이며, 한국 화장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나아가서는 한국 화장품 뷰티산업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고 전했으며, "전 세계적인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했다.

작년에 진행된 'in-cosmetics Korea 2016' 에서는 ▶ 세계적인 관련 연사자들과 10여개 화장품 원료 회사의 기술, 제품 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 ▶ 세계적인 원료회사 제품의 전시 및 1:1 바이어 상담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국내외 우수한 화장품 원료,부자재 기업 약 400여개사의 참가로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동 박람회 참관 및 시상식 (in-cosmetics Korea Award 2016)의 사전등록 및 신청 등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해외전시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해외전시팀 Tel: **02-861-8087**
E-mail: ibita@ibita.or.kr

2017아부다비 럭셔리/유니크 제품 전문박람회

빅보이스 & 우먼스월드월드 중동 新소비층 '히자비스타' 잡아라

- 중동 젊은 소비층 전통 지키면서 화려 · 세련된 스타일 주도 -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윤 주택 이사장)은 Artaaj사와 지난 2월 한국 단독 대표부로 전격 합의했다.

현재 중동에서는 이슬람 종교적 신념에 따라 피부를 노출하지 않으면서 세련된 옷차림을 하는 여성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히자비스타' 로 불리는 새로운 소비자층이 형성되면서 무슬림 패션 시장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막강한 소비력을 갖춘 히자비스타를 공략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은 무슬림 소비자 취향에 맞춰 화려하고 색채감 있는 제품들을 선보일 필요가 있다.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와는 달리 두바이는 화장품 및 스킨케어관련 할랄 인증이 강제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두바이 표준청의 허가를 통과할 경우 할랄 인증 없이 다른 중동 국가에 쉽게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및 오만 등 소득수준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국가들의 소비층이 한국의 뷰티 / 헬스 케어 제품등을 주목하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잘 조직화되어 있는 이곳 국가들의 이슬람 사회가 할랄 화장품 시장이 성장하는 데 추진력을 제공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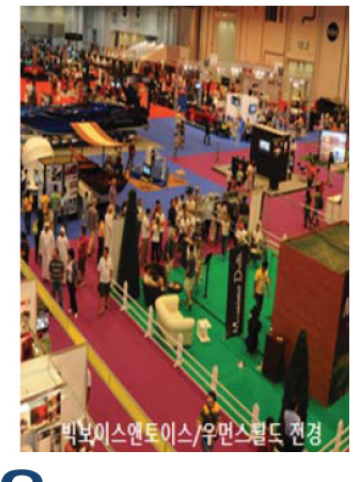
최근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IBITA)에서는 중소기업의 중동 무슬림시장 진출을 돕기 위하여 중동 최고의 뷰티 럭셔리 유니크 제품 박람회인 BIG BOYS AND TOYS & WOMENS WORLD의 주최사인 Arjaaj사와 한국 단독 대표부로 합의했다.

Artaaj사는 영국, 인도, 아랍 에미레이트, 카타르 등에서 열리는 전문전시회, 신규제품 런칭쇼, 국제 회의등을 주최 운영하는 세계적인 전문 전시 업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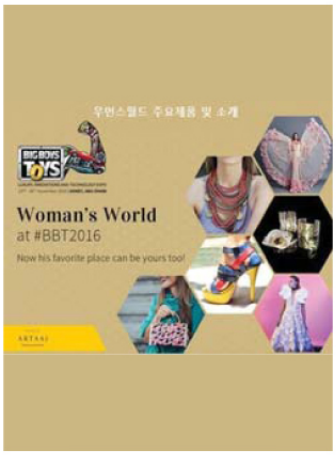
빅 보이스 & 우먼스 월드는 8회 차 열리는 행사로 2017년 11월 2일 부터 11월 4일까지 아부다비의 제일 큰 전시장인 ADNEC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IBITA)에서는 국내 뷰티 헬스 업체분들의 중동 럭셔리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17 빅보이스 & 우먼스월드 박람회' 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주관. 진행한다.

동 박람회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해외전시팀**
Tel: **02-861-8086**, E-mail: jt.youn@ibita.or.kr



빅보이스앤토이스/우먼스월드 전경



'2017-19년 북미 라스베가스 화장품 미용 유망박람회' 선정 남미 최대 전시회인 '2017 브라질 뷰티페어' 정부지원 선정

(사)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IBITA (이사장 윤주택)는 7월 9일부터 11일 미국 라스베가스 만달레이베이 컨벤션 센터(Mandalay Bay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되는 '북미 라스베가스 화장품 미용 박람회 (Cosmoprof North America 2017)' 가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유망박람회로 선정되었음을 알렸다.

IBITA는 20개 기업을 시작으로 2017년 50개가 넘는 기업을 한국관에 유치시키기 위해 정부에 지속적인 지원금 요청과 더불어 참가사들의 사전 · 현장 · 사후지원까지 매년 끊임없는 지원과 노력을 통해 표제의 박람회를 유망박람회까지 이끌수 있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박람회에 참가한 국내 화장품 · 뷰티 기업분들의 응원과 지지와 더불어 성과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전했다.

한국관은 본 박람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프로페셔널 뷰티 섹터로 화장품, 헤어, 네일, 에스테틱&스파, 미용 잡화 등 뷰티 관련 다양한 품목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출입구와 가까운 주 메인 통로에 위치하고 있어 보다 많은 바이어들과 참관객의 이목을 끌고 있다.

또한, 한국적인 미와 아름다움으로 국가관을 형성하여 표출함으로써 유럽을 비롯하여 미주 ,중동,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바이어가 한국 국가관을 방문하여 K-Beauty를 선도하는 우수한 한국 기업의 제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높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주최측의 제안에 따라 스페셜구역인 Discover Beauty Zone에 한국 화장품 · 미용 기업 유치 담당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동 존은 일반 소비자가 입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바이어와의 미팅이 가능하나, 참가를 위해서는 주최측의 심사를 거쳐 가능하다고 전했다.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IBITA)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한국관 및 Discover Beauty Zone을 통해 한국 화장품 산업의 혁신적인 연구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제품을 각국의 바이어들과 참관객들에게 알림으로써 한국 뷰티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거쳐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7 – 19년도에는 기 확정된 정부지원금을 통해 수출 초기화 기업이 더 많은 기술을 세계로 알릴 수 있도록 기획할 예정이며, 동 박람회 참가신청 등의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해외전시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해외전시팀 **02-861-8084~7 / 8131~2**)





사진출처: **2016 미국 라스베가스 화장품 미용 박람회 한국관 전경**



전시장 외부



전시장 내부

(사)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IBITA (이사장 윤주택)는 9월 9일부터 12일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개최되는 '브라질 뷰티 페어 (Beauty Fair)' 가 2015년도에 이어 2017년도에도 정부지원 박람회로 선정되었음을 알렸다.

브라질 뷰티 페어는 세계 2위 규모, 중남미 최대 규모(84,000sqm) 뷰티 박람회이기 때문에 브라질 내수시장 뿐만 아니라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필참 전시회 이다.

중남미 화장품 시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1%성장이 예상되며, 전세계 시장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브라질 국민은 외모가꾸기를 중시하기 때문에 전문샵을 통한 헤어, 네일, 스파/에스테틱, 체형관리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르러지며, 중산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최근들어 남성 미용제품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2019년도까지 7.1% 성장세를 보이고있으며, 연 매출액 67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전문지 Valor Economico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브라질과 태평양동맹간의 통상관계 강화는 이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무역 기회를 확대 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하였으며, 남아메리카에서 공통무역지대를 확보해 관료주의적 행정 및 운영상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거라 밝혔다.

KOTRA 상파울로 무역관에서는 빠른속도로 고령화가 되어가고있는 브라질은 2037년에 이르면 60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5000만명을 넘어서 전체인구 22%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보호서비스 업체(SPC)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형외과를 찾는 노인 환자 증가, 노인용 화장품, 향수, 위생용품 수요 증가, 건강식품 수요 증가가 됨에따라 노인들의 소비 성향을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삼이 포함된 건강보조 식품이나 비타민, 홈케어용 미용기기, 보습제, 자외선차단제, 천연 화장품 등 건강과 웰빙 생활을 추구하는 제품이 관심을 불러올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IBITA는 유망국가 남미시장을 진출하기 위해 한눈에 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2017 브라질 뷰티 페어를 통해 제공해드릴 예정이며, 동 박람회 참가신청 등의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해외전시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해외전시팀 **02-861-8084~7 / 8131~2**)

아시아 최대 미용 박람회 "2017 중국 광저우 국제 미용 박람회" KOREA-IBITA 한국단체관 주관 개최

- 국내 화장품 업계, 중국은 화장품 세계 2위시장, 중국 사드배치 논란 속에서도 중국 박람회 수요 여전히 높아 -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는 오는 3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중국 광저우에서 "2017 중국 춘계 광저우 미용 박람회(China International Beauty Expo(Spring) 2017)" KOREA-IBITA 한국단체관 주관하여 개최 할 예정이다.

동 박람회는 '홍콩 코스모프로프 아시아' 와 더불어 아시아 최대 규모 박람회이자 중국 미용 시장을 이끄는 대표 박람회이다.



2016 춘계/추계 광저우 미용 박람회 KOREA-IBITA 한국단체관 현장사진

올해 46회째 개최로, 이번 박람회는 260,000sqm 면적에 35개국, 3,500개 업체 참가 할 예정이다. 해마다 참관객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규모 또한 확장되어가고 있으며, 중국 시장에 대한 최신 트렌드 파악과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참가 박람회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

최근 중국 사드배치 논란으로 중국 정부가 국내 화장품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대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중국 대표 미용 박람회인 중국 춘계 광저우 미용 박람회에 대한 국내 수요는 여전히 높았다.

이번 춘계 광저우 미용박람회의 한 참가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 화장품 수출 1위 국가로, 현재 업계 국내 기업들 대다수가 중국 현지에서 대규모 설비와 유통망을 구축하여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화장품 1인당 소비액(약 35달러), 200달러가 넘는 선진시장과 비교했을 때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며, 한국 화장품에 대한 중국 내 인지도와 수요는 여전히 높은 만큼 섣부른 우려는 오히려 좋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6년 화장품산업 수출실적 통계(추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4조7,899억 원으로 전년과 견줘 43.7% 증가했다. 그 중 중국 상대 화장품 수출액은 1조7,980억원로 비중이 37.5%에 달한다.

중국은 한국 화장품에 대한 주요 소비국이며, 향후 화장품 세계 2위 시장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드배치로 인한 국내 화장품업계에 대해 타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쉽게 포기 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 분위기이다.

한편, 현재 협회에서 국내 기업의 중국지역 개척을 위해 중국 유망 박람회 5월 하계 상하이 미용 박람회, 9월 추계 광저우 미용 박람회, 9월 아시아 뷰티 엑스포 상하이 박람에 한국단체관을 주관하여 참가사 모집 중에 있다.

(**문의**: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해외전시팀 **02-861-8084~7 / 8131~2**)

세계 3대 전시회 '2017 홍콩 코스모프로프 아시아' 2개 전시장(HKCEC/ AWE)에서 진행

- IBITA 화장품관/헤어관/에스테틱관/네일관/이멀징관등 섹터별 주관 진행 -

(사)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IBITA (이사장 윤주택)는 세계 3대 전시회 중 하나인 '홍콩 코스모프로프 아시아' (Cosmoprof Asia) 박람회에 KOREA-IBITA관을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주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 박람회는 2016년도부터 2개의 전시장(HKCEC / AWE)에서 품목별로 섹터를 구분하여 진행되었으며, 2017년도에도 2개의 전시장에서 품목별로 섹터를 구분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HKCEC(Hong Kong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전시장에는 화장품 및 에스테틱 · 미용기기, 헤어, 네일 등의 완제품이 참가가능하며, AWE(Asia World Expo) 전시장에는 OEM/ODM, 패키징 등의 기업이 참가가능 하다.

참가기업분들의 말에 의하면 "품목이 확실히 구분되어있으니, 미팅의 질이 향상었다.", "예전에는 너무 많은 인파들이 몰려와서 정신이 없었는데, 전시장을 구분하고 나니 미팅의 산만함도 없어지고 미팅시 정리와 진행속도도 빨라졌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전시 주최측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하였지만, IBITA에서도 2016년도 홍콩 코스모프로프는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가능성을 본 박람회였다고 말한다.

IBITA는 2016년도 KOTRA지원을 통해 KOREA-IBITA 한국관을 운영했다.

20주년이 넘는 홍콩 코스모프로프 박람회에서 화장품 섹터가 아닌 에스테틱섹터, 헤어, 네일 섹터 등의 참가기업에게 지원해준 연혁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매년 섹터별로 참가사가 참가를 하기 때문에 가장 비중이 높은 화장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한하여 지원이 되었다. 그러나 IBITA가 각 섹터별로 부스면적를 보유하면서 섹터별 지원을 첫 시도한 것이다. 이에따라 한곳에 모여 있어야 가능했던 지원사업을 참가사 제품에 맞게 섹터를 참가하면서도 정부지원사업에 참가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교두보 역할을 한 것이다.

국내 모든 화장품 · 뷰티 기업이면 아시는것과 같이, 홍콩 코스모프로프는 매년 면적이 없어 참가를 할 수 없었던 박람회 이다.

그렇기에 IBITA관계자는 하반기 박람회라도 미리 서둘러서 계획을 하여야 하며, 동 박람회 참가신청 등의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해외전시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해외전시팀 **02-861-8084~7 / 8131~2**)

HKTDC와 함께하는 세계 최대 B2C 뷰티 박람회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IBITA '2017 홍콩 뷰티 앤 웰니스' 한국관 운영

사단법인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이사장 윤 주택)는 2014년에 개최된 홍콩 코스모프로프 박람회 기간 중 홍콩무역발전국(Hong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과 국내 뷰티 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골자로 하는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협회에서는,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홍콩 뷰티 앤 웰니스 (HKTDC Beauty & Wellness Expo) '를 2017년부터 한국관을 구성하여 홍콩무역발전국과 공동주관으로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뷰티 제품은 한류에 힘입어 특히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뷰티 산업뿐 아니라 생활소비재의 영역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 전했으며, "이번 홍콩 뷰티 앤 웰니스는 홍콩 푸드 엑스포, 홈 딜라이츠, 티 페어와 함께 개최되며 홍콩 전역에 있는 98%이상 로컬분들의 참여가 큰 B2C 전문 전시회이기에 많은 참관객들이 올 예정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동 박람회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해외전시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해외전시팀 **02-861-8084~7 / 8131~2**)

ASEAN 최대 국가의 자부심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 성장잠재력 무한

인도네시아는 ASEAN 최대 국가라는 자부심이 매우 강하며, 이에 따라 국제 표준 등을 준수하기보다 자국 기준을 대외에 적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자국 인구 규모가 필리핀, 베트남, 태국의 3개국 인구의 합(2억 5,700만)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며, 총 GDP는 2015년 기준 USD 8,730억달러로 ASEAN 10개국 총 GDP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인구 규모에 기반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의 최대 국가라는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현지 생산 거점을 운영하고 있어 개별 구매력에 비해 눈높이가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수입화장품 수요가 가장 높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우리기업의 진출률이 낮은 이유는 까다로운 인도네시아 식양청 (BPOM: Badan Pengawas Obat Makanan)인증에 대한 부담감 등의 이유로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인증 부여 기관을 대표하는 루끄마루 하낌(Lukmaru Hakim) MUI 할랄 위원장은 2019년까지 전 세계 할랄 식품 시장은 289조 원(2,500억 달러, 전 세계 식품시장의 2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인니는 2019년 10월부터 시행되는 할랄제품인증법에 의거 기존 축산품에서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으로 할랄 의무 인증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인니에 관심 있는 한국 기업들은 세부 시행령 개정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확대는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자국 산업 보호용 비관세장벽 강화로 분석되며 거대 인구로 잠재력이 높은 인도네시아 소비재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세부 인증 절차 개편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고 이를 기초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에서는 ASEAN 국가들을 타겟으로 한 최대 최고의 미용박람회인 2017년 인도네시아 뷰티&메디케어에 참가 희망 기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2016 인도네시아 뷰티 & 메디케어 현장사진

IBITA, 태국 화장품 시장을 공략하다

- 2017년부터 한국산 화장품류 무관세로 가격경쟁력 향상 -

- 태국아세안(ASEANbeauty)뷰티/ 태국 인코스메틱스 아시아(in-cosmetics Asia)박람회-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이사장 윤주택)는 오는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태국 방콕 BITEC 전시장에서 열리는 뷰티 종합 박람회인 'ASEANbeauty 2017'에 한국관을 모집, 참가한다.

2017년 방콕 아세안뷰티(ASEANbeauty 2017)는 3일 동안 진행되는 뷰티 전문 무역 박람회이며, 스킨케어, 메이크업, 스파, 네일, 헬스&웰빙 등 다양한 분야의 뷰티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태국 화장품제조협회와 공동으로 진행된다.

2015년 첫 참가에 이어 올해 3번째 참가하는 태국 아세안 뷰티박람회는 한국관 총 18개사가 참가하며, 태국 화장품 시장이 2017년도 1월 1일부터 무관세로 전환됨에 따라 가격경쟁력에 있어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많은 한국 업체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IBITA는 태국 뷰티 시장을 떠오르는 블루오션으로 보고 태국 아세안에 이어 2017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방콕 BITEC 전시장에서 열리는 '태국 인코스메틱스 아시아(in-cosmetics Asia)' 인 원료 전문 박람회에서도 한국관을 꾸려 참가할 예정이다.

태국 인코스메틱스 아시아는 2016년 중소기업중앙회 정부 지원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관 참가 11개 사 업체들은 최대 40% 이상 정부지원의 혜택을 받았다.

출장자들의 말에 따르면, IBITA한국관이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이노베이션존(센터) 바로 옆에 위치해있어 바이어분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첫째 둘짯날에는 글로벌 기업들, 마지막날에는 태국 로컬기업과 한국 유통업체들이 많이 방문해 2015년에 비해 더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전했다.

IBITA는 이번 2017년 태국 아세안 뷰티 및 태국 인코스메틱스 아시아 박람회 기간동안 한국관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분들이 전시회를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참가부터 현장지원까지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2016 태국 인 코스메틱스 아시아 박람회



2016 태국 아세안 뷰티박람회 현장사진

2016 사우디 헬스 & 뷰티 정부 지원 한국관 참가

– 2회 연속 참가사 명신메디컬 1년 독점 500,000만달러 계약 –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회장 윤주택)는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중동 최대 뷰티 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 젯다에서 개최되는 "2016 사우디 헬스&뷰티 (Saudi Health & Beauty 2016)"에 KOTRA 지원으로 한국관 주관하였다. 2014년 첫 참가 이후 2015년 2016년 KOTRA지원으로 2년 연속 지원 한국관을 단독 주관 하였으며 화장품, 리프팅실, 질경이, 에스테틱 관련기기등 총 10개사가 한국관에 참가를 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올해는 럭셔리한 분위기를 추구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인들의 특성에 맞게 젯다 힐튼 호텔 컨벤션센타로 장소를 옮겨 바이어 참관을 좀더 용이하게 진행 하였다.

사우디는 세계 최대 산유국답게 탄탄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여성 1인당 연간 화장품 구매액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로 꼽혔다 아울러 중동에서 전문 뷰티살롱 점포수가 가장 많은 국가로, 에스테틱 샵 뿐 아니라 병원 및 클리닉을 통한 1:1 맞춤형 케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건조한 기후와 더불어 기름진 음식 위주 식습관으로 최근 비만관리와 천연 및 유기농 성분의 기능성 화장품, 안티에이징이 각광받기 시작하였으며, 유럽과 명품 브랜드들이 시장 내 럭셔리 케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토록 잠재력이 큰 시장임에도 그동안 한국 기업의 시장진출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에서는 사우디 시장의 잠재력을 믿고 꾸준히 한국관을 주관 한 결과 올해 2회 참가한 명신메디컬에서 작년에 만난 바이어를 꾸준히 관리하여 현장에서 1년 독점 500,000달러를 현장 계약 하였으며, 또다른 에스테틱 관련 참가사는 현장 계약뿐만 아니라 향후 1년동안 20대 판매 계약을 진행 하였고, 리프팅 관련 기업은 현재 독점 에이전트 계약 성사를 앞두고 있다.

올해 이러한 성과를 거둘수 있었던 것은 사우디인들의 특성상 매체를 통한 정보보다 사람을 통한 정보를 신뢰해, 모든 일을 진행할 때 현지인, 특히 관계부처 종사자와의 친밀한 관계 및 정보가 필수적임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참가를 한것과 사전 바이어 매칭을 통한 바이어 정보를 미리 참가사에게 전달하여 바이어 정보를 파악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것이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고 협회관계자는 전한다.

이에 협회에서는 2017년도 사우디 시장 진출의 본격적인 해로 정하여 더 확장된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할 계획이며. 특히 성공적인 젯다 전시회이어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에서 열릴 제1회 사우디 리야드 헬스 & 뷰티 전시회에도 참가사를 모집중이다.

(**문의:** (사)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해외 마케팅팀 **02-861-8084**)





중동에 떠오르는 블루 오션 "이란뷰티 &클린 박람회" 를 가다.

–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김은정 국장 –

이란은 첫 출장이라 설렘을 가득 안고 출발 하였다. 2016년 경제제재가 풀린다는 소식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이는 핫한 시장 이었다.

터어키 전시회를 마무리 하고 이스탄불에서 출발하여 테헤란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새벽 1시쯤 도착하여 잠이 덜 깬 상태로 수속을 밟기 위해 비행기에서 내렸다.

그 새벽에 도착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다.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이란에 도착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착비자로 입국을 하기 위해 대기를 하고 있었고 기약 없는 기다림이 계속 되었다. 담당자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 할 일만 하고 대기자들은 무질서 속에서 서로 먼저 하겠다고 이리저리 파고 들었다.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지' 화도 나고 피곤도 하였지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차례를 기다리며 5시간을 서서 대기 하다가 드디어 도착 비자를 받고 입국을 하였다.

너무 기쁜 나머지 머리를 가리는 것을 깜빡 잊고 그냥 나오니 경찰이 나를 불러 머리를 스카프로 가리라 하여 미리 준비한 스카프로 머리를 가리고 출국장을 빠져 나왔다

이란의 수도답지 않게 공항은 우리나라 국내선 공항보다도 더 낙후된 모습이었다. 전시장으로 가는 차안에서 보이는 이란의 첫 인상은 우리나라 70,80년대 모습이었고

도로에 다니는 차들은 연식이 얼마나 된지도 모를 정도의 오래된 차들이 많았고 그 차들이 뿜어 대는 매연은 코를 막고 다녀할 정도로 엄청난 매연이 숨을 막히게 하였다

하지만 이란은 내가 가본 중동 다른 나라와는 달리 4월에 날씨가 우리나라 4월과 비슷하였고 중동은 사막이라는 생각을 깨게 만들었으며, 길에는 나무들도 있었고 산꼭대기에는 4월이지만 눈이 쌓여 녹지 않은 풍경은 낯선 중동의 모습이었다.

터어키 전시회를 마치고 온터라 이란 전시회는 개막식날에 도착하여, 미리 출장온 담당자에게 어제 있었던 디스플레이날 이야기를 들으니 많이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이란은 영어가 통하지 않는 나라다. 전시 주최사 담당자들 중에서도 영어를 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았고 특히 장치 담당자들은 아예 영어를 하는 사람이 없었고, 일은 느려서 한가지를 요청해서 마무리 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그렇게 힘들게 디스플레이를 마치고 전시회가 개막이 되었다

이란 전시장은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파크형 전시장으로 크고 작은 홀이 30여개가 넘는 큰 전시장이었다. 이태리, 터어키, 인도, 중국 등 여러나라의 국가관이 참가를 하였고, 현지 참가사 뿐만 아니라 이란 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전시 주최사들도 잠재력을 보기위해 참관을 하였다. 첫날은 참관객들이 많지 않아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이틀째 되는 날부터 어제의 걱정을 완전히 해소 하듯이 엄청난 참관객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한국관 참가사 부스에도 상담들이 지속적으로 진행 되었다

한국관에는 마스크팩, 화장품, 원료, 네일, 속눈썹, 화장품제조사, 헤어 관련 15개 기업이 참가하였고 이란에서도 한류문화 (특히 예전에 방영된 주몽이 아직도 방영중이었다) 전파로 인해 한국인, 한국 상품에 인식이 아주 높았다. 한국관은 다른 나라국가관보다 더 많은 참관객들이 몰렸으며, 현지 주최사에서도 한국 상품에 대한 인기에 놀라워했으며, 한국 참가사들 역시 한국제품의 높은 관심이 신기 한 듯 하였다

이란 도착 후 입국부터 전시 개막 전까지의 힘들고 어려 시간들은 눈 녹듯이 녹고

이제 '이 무한한 잠재력의 시장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가야 하지' 라는 희망찬 기대가 시작 되었다

가진것은 많지만 그동안 가진것을 쓸수 없던 나라에서 이제는 중동의 떠오르는 경제대국을 향해 나아가는 이란 시장은 이미 진출한 다른 나라 시장에 비해 제약 조건이나, 어려움이 많은 시장임은 분명하지만, 잠재 되어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나라임이 분명하기에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만 하는 시장임이 틀림없음을 몸소 느끼고 온 전시회였다

오늘 보다 내일이 더 기대 되는 나라 이란, 2017년 더 큰 기대를 안고 돌아오게 되었다

중동 시장 진출 최적의 게이트 "2017 두바이 뷰티 월드 (Beauty World Middle East 2017)" 한국단체관 주관 진행

- 중동의 화장품 시장, 연평균 15%의 고성장이 전망되는 블루오션 지역 -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는 오는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세계 4대 국제 미용 종합 무역 박람회인 "2017 두바이 뷰티 월드" 한국단체관 참가사를 모집 중에 있다.

동 박람회는 세계 4대 미용 종합 박람회이자 중동 지역 최대 미용 박람회로 중동 지역 시장 개척을 위한 필참 박람회로 손꼽고 있다. 2016년 기준 27,426sqm 규모, 59개국 1,522개사, 40,000명 참관 하였다.

동 박람회는 B2B 지향, 중동지역 업계 전문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최적의 플랫폼으로 인정받고 있는 박람회로, 올해 최초 한국단체관 참가하여, KOREA-IBITA 한국 단체관은 화장품 원료, OEM&ODM, 스킨케어 섹터와 스파, 에스테틱, 미용기기섹터 두 군데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중동의 화장품 시장은 2015년 180억 달러 규모에서 2020년 360억달러로 연평균 15%의 고성장이 전망되는 블루오션 지역으로, 세계적인 뷰티 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시장이다. 아시아 지역의 연평균 성장률이 7%인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의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두바이 지역은 중동의 트렌드 발신지 역할을 하는 거점 지역으로서 최근 국내 업계에서 시장 잠재성을 예측하여 최근 중동 두바이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IBITA 윤주택(이사장)은 "중동시장은 포스트 차이나 국가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한국 드라마와 K팝 등 한류문화가 확산되면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합리적인 가격 및 품질로 중동시장의 한국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높다." 이어서 "동 박람회는 중동지역 대표 박람회로서, 이번 박람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중동 시장 진출의 성공적인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현재 협회에서 참가 모집 중에 있으며, 참가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면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 02-861-8131)

2017 두바이 피부미용 전문 박람회

- IBITA 한국관 구성, 5회째 주관 진행 -

"피부미용, 박피, 레이저, 피부관리 전문 박람회 중동 두바이에서 열린다"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는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IBITA 한국관을 구성, 5회째 주관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제일 큰 피부미용 전문 전시회인 두바이에 매년 참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크게 확대 되고있는 유망 박람회이다.

'2017 두바이 더마' 는 피부과, 피부 관리 및 레이저 분야의 전문 박람회로써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약 9,600sqm 규모, 45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였고 12,500명 이상이 동 전시회를 방문하였다.

두바이 더마는 모든 참가자들이 다양한 코스, 워크샵 및 강의를 통해 피부 과학 및 기술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고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과학 프로그램은 이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자가 기존 협업을 강화하고 전 세계의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새로운 협업을 개발하는 데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우수한 교육 기회 외에도 컨퍼런스와 함께 개최되는 전문 전시회는 업계의 비즈니스 주체가 최신 장비, 기계 및 제품을 선전하고 홍보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이사장 윤주택)은 중동, 아프리카 지역 바이어들은 중동 미용박람회를 통해 한자리에 모이고 있다며 기업들은 직접 대면상담하기 어려운 이 지역 바이어들을 박람회를 통해 만나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파악되므로 관련 우리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전시회에 참가해 제품을 소개하고, 현지 트렌드를 파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중남미 21개국, 4억 5천만 명을 만날 수 있는 잠재적인 시장 - "멕시코"



- 청주대학교 Gtep 사업단 이호건 교수
-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자문위원

멕시코 뷰티 시장은 글로벌 브랜드의 고가품과 중국산 및 멕시코산 저가품의 양분화된 시장이었다. 그러나 멕시코가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로 발전하면서 중산층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양질의 제품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중·고가 제품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 중·고가 뷰티 시장의 성장

멕시코의 가장 큰 시장을 이루고 있는 고객층은 중산층 및 저소득층이다. 그동안 이들은 중국산 또는 멕시코산 저가 화장품을 선호하여 가격 경쟁력만이 중요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구매력의 증가와 함께 그동안 저가 제품에서 발생한 문제들, 즉 화장품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 불량 케이스에 대한 불만, 저급한 디자인 등으로 인해 점차 양질의 중·고가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이미 한국산 화장품은 멕시코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놀라운 것은 공식적으로는 몇몇 교민이 운영하는 매장을 제외하고 아직 정식으로 수입된 품목이 거의 없다. 그러나 2016년을 지나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 멕시코로 수입된 한국산 화장품들이 대형 쇼핑몰이나 센트로의 시장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멕시코에는 아직 화장품 생산업체가 많지 않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몇 몇 기업에서 저가 상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점차 중·고가 상품으로 라인업을 갖추려고 하고 있다. 또한 헤어, 색조화장, 네일에 집중되어 있던 제품들이 점차 피부관리 및 기초화장으로 확대되 고 있다. 현지 기업들은 R&D를 통해 제품을 개발하기 보다는 OEM이나 자사 제품의 브랜드 네임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것에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멕시코로 직접수출은 물론 OEM 수출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직 중·고가 브랜드가 정착되지 않은 멕시코 시장에서 한국 뷰티 제품의 브랜드 충성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 중남미 최대 쇼핑몰 LINIO로 O2O 마케팅

Linio는 2012년 중남미 8개국에 개설한 가장 큰 중남미 온라인 쇼핑몰이다. 2016년 한국 대통령의 중남미 방문에서 멕시코, 콜롬비아 등과 비즈니스 협력을 위해 코트라와 Linio간 MOU를 체결한 바 있다.

Linio는 해외 직판 업체에게는 Open Market, 멕시코 국내 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쇼핑몰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즉 국내 판매 업체는 멕시코의 인증을 획득한 제품만 등재가 가능하나 해외 직판업체에게는 그러한 규제를 하지 않아 누구나 제품을 등록하여 판매하여 시장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쇼핑몰은 B2C이지만 B2B를 이끌어 내기 위한 최적의 마케팅 수단이다. 특히 아직 뷰티 상품이 많이 등재되지 않은 Linio의 경우 시장 선점의 관문이 될 수 있다. 즉 온라인으로 불확실한 시장을 점검하고 오프라인으로 기업을 연계하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IBITA는 코트라 멕시코 무역관과 협의하여 IBITA를 통해 Linio에 등재한 제품에 대해서는 2017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있을 K-Sale Festival에서 Linio에 무료로 광고를 넣어 주기로 하였다.

떠오르는 시장, 남미국가 멕시코와 콜롬비아를 주목하라!

-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콜롬비아 최초 진출 -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이사장 윤주택)는 중남미 국가를 타겟으로 2017 멕시코 뷰티 & 클린 박람회를 매회 참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콜롬비아 최대 뷰티 박람회인 보고타 뷰티 앤 헬스 박람회에 2017년 한국관 최초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콜롬비아는 최근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중산층이 증가하여 소비시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또한, 주목할 만한 특성으로는 경제활동 가능한 젊은 인구를 바탕으로 한 소비시장 활성화로 인해 화장품 수요 증대와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며 경제활동가능 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코트라 보고타 무역관에 따르면, 한국 업체들은 남미 시장(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에서도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천연 화장품과 남성 화장품 시장에 관심을 두고 진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젊은 남성층에서 외모를 가꾸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젊은 남성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미용 제품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2016년 협회에서 주관 진행한 멕시코 뷰티 & 클린 전시회에서도 한국관 20개사 이상 참여하여 남성 뷰티제품, 스킨케어, 스파 및 네일 제품에 큰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

그에 반해 사실 콜롬비아는 떠오르는 미용시장이기는 하나 중남미 국가 중 아직 한국 업체의 진출이 미미하기에 콜롬비아 시장의 개척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협회에서는 브라질(정부지원)전시회를 비롯하여 멕시코, 콜롬비아를 기점으로 중남미 국가의 최대 뷰티 전시회를 참여, 중남미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업체를 위해 단독에이전시로서 2017년 10개사 이상 한국관 운영 계획으로, 현재 참가사를 모집하고 있다.

"호주에서도 알아주는 K뷰티"

■ 호주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메이크업 제품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호주의 한국산 기초 화장품 수입액은 1271만 달러(한화 약 147억7500만 원)로 호주 내 수입시장 점유율 3.26%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23.22% 늘어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전체 수입국을 놓고 봤을 땐 태국(1670만 달러), 독일(1543만 달러)보다 뒤처진 8위였다. 기초화장품 수입국 1위는 미국(1억2375만 달러)이 차지했다. 한국산 화장품 가운데 호주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은 아이 메이크업 제품이었다. 3.5%의 수입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8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의 높은 수입 증가율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호주 내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KOTRA가 최근 현지인을 대상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화장품 브랜드 및 제품 3가지를 적어달라' 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산 화장품은 10위권 밖이었다. 호주 화장품 시장은 해마다 3%대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화장품 소비는 가처분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가처분소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 아시아 시장에서 성공한 제품보다는 미국, 유럽에서 성공한 제품이 유리

최근 들어 중국, 인도, 필리핀 등 아시아계 이민 인구 및 관광객이 급증하며 아시아 화장품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다.

KOTRA 시장동향분석팀은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수출액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아시아 국가들의 호주 수출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학생이나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품질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은 아시아산 팩, 색조, 기초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산 화장품의 호주 수출규모를 늘리기 위해선 시장 규모가 큰 기초 화장품 부문을 공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현지 수요와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아시아 시장에서 성공한 제품을 내세우기보다 미국 시장에서 성공한 브랜드를 들여오는 것이 더 유리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호주 시장은 아시아 시장과 달리 유행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의 특색과 명확한 콘셉트가 중요하며, 강점을 잘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면서 "모델 중심의 홍보보단 제품 브랜드명에도 스토리와 콘셉트를 담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고 덧붙였다.

현재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IBITA에서는 호주 뷰티 시장을 시작으로 오세아니아 지역 뷰티 전문 전시회에 진출하여 한국 업체들의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며, 오는 8월000에 시드니에서 열리는 뷰티 박람회에 관심있는 참가사들을 선착순으로 모집중에 있다.

유라시아 내 최고 수준 박람회 "2017 터키 뷰티 유라시아" KOREA-IBITA 한국단체관 참가사 모집

-터키 뷰티 시장 최근 5년간 12%씩 꾸준하게 성장률 보여-
-평균 연령 30.1세 젊은 국가인 터키에 최근 한류열풍, 한국화장품에 대한 관심 고조-



(사)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IBITA는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유라시아 내 최대 국제 미용 박람회인 2017년 제 13회 터키 뷰티 유라시아 박람회(13th Beauty Eurasia 2017 in Turkey) 한국단체관 참가사를 모집 중에 있다.

이번 박람회는 터키 이스탄불 IFM – Istanbul Expo Center, Hall 10에서 개최되며, 55개국 600+개사 참가, 폴란드, 그리스, 독일, 불가리아, 모로코, 이태리, 오스트리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16개 국가관을 구성하여 개최 할 예정이다. 동 박람회는 유럽 각국과 아시아의 중간에 위치하여 다양한 바이어와 방문객들과의 정보 교류의 장으로 손꼽히는 박람회이다.

터키는 높은 경제 성장으로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화장품 시장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2014년 기준 15억 유로(약 2조 1,000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여 우리 기업들이 반드시 공략해야 할 시장 중 하나다.

또한, 터키의 화장품 산업의 주요 수요층은 25세~54세의 연령층으로, 이 연령대는 터키 전체 인구의 59.8%에 달한다. 한-터키 FTA 발효로 인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담이 줄어들었으며, 최근 한류 열풍으로 한국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터키 미용 용품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윤주택(이사장)은 "한국 화장품은 터키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동 박람회 참가를 통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 개척 노력이 필요하다." 이어서 "우리 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터키 시장 및 각국 바이어들에게 알리고 참가사의 성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우리 협회에서 적극 참가 지원 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들의 많은 참가와 관심 바란다." 라고 전했다.

한편,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는 동박람회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지원으로 한국국가관을 운영하였다. 동 박람회의 참가신청 등 관련 문의사항은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해외 전시 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해외전시팀 02-861-8084~7)

'러시아' 화장품 시장 규모 전세계 10위, 유럽 4위 매년 6~12%성장, 국제 미용시장 2배이상 성장

– 러시아 전체 시장에서 56%가 수입품 –
– 2016년 한국, 러시아의 화장품 수입국가 10위권 진입 –

러시아 화장품 시장은 약 14억 달러 규모로 전 세계 10위, 유럽 4위 규모의 국가다. 매년 6~12% 성장세를 보이는데, 국제 미용시장의 2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러시아 여성들 사이에서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화장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현지 제조 비율은 10%에 미치지 못해 대부분의 화장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 화장품 비중이 전체 시장의 5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듯 러시아는 화장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한국화장품은 2016년 러시아 화장품 수입 규모 상위 10위권에 진입하여 크게 선전하고 있다. 한류열풍, K뷰티 확산 등으로 인해 젊은 계층 사이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 급증의 이유를 KOTRA 러시아 모스크바 무역관 글로벌 윈도우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3년간 러시아의 경제침체로 인한 소비자 구매 성향이 합리적인 제품 구매 성향으로 바뀌면서 '가성비' 가 좋은 한국 화장품 제품에 수요가 늘어 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러시아 중산층은 최근 웰빙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 화장품은 원료가 대부분 천연성분으로 저자극성이어서 성분의 우수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윤주택(이사장)은 "K뷰티 열풍과 함께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국 화장품은 러시아 내 인지도와 신뢰도가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제품의 러시아 뷰티시장에서 성장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시장은 다소 까다로운 유럽 진출 이전에 사전 테스트 개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곳이어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하다. 우리협회는 우리기업들의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러시아 최대 규모 미용 박람회인 "2017 러시아 모스크바 인터참" 박람회에 한국단체관을 구성하여 올해로 2회째 참가하고 있다. 러시아 진출이 적기인 만큼 우리 기업들의 동박람회에 대한 많은 참가와 관심 바란다" 라고 전했다.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는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러시아 최대 규모 미용 박람회인 2017년 러시아 모스크바 인터참(inter CHARM2017)에 한국단체관 주관하여 참가사 모집 중에 있다. 동박람회 참가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해외전시 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해외전시팀 02-861-8084~7)

■ 세계 유기농 인증마크 현황

국가	인증서	인증 마크	내 용
미국	USDA		미국 농무부(국가기관)의 유기농 인증 마크 95%이상의 원료가 유기농이어야 제품 주요 표시란에 'ORGANIC' 표시 가능
	QCS		Florida Certified Organic Growers & Consumers 에서 제공하는 유기농 인증 마크. USDA에서 관리
유럽	ECOCERT (프랑스)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해 유기농 제품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해주는 민간기관, 유럽공동체 EC의 법 2092/91 조항의 유기 품질관리 규정에 따라 심사 수행
	BDIH (독일)		독일의 자연주의 화장품 및 의약품, 식품, 식품 첨가물, 개인위생제품 등의 무역업체와 기업들이 모여서 만든 연합단체
뉴질랜드	Bio Gro		뉴질랜드의 비영리 단체인 NewZealand Biological producers and consumers Council Inc (NZBPCC)에 의해 주어지는 유기농 인증
호주	BFA		Biological Farmers Australia 인증마크, 호주 농어업 산림부에 등록된 인증 조합 중 가장 큰 규모

■ 2017 북미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 07.09-07.11



7월

■ 2017 홍콩 뷰티 앤 웰니스 08.17-08.21

8월



■ 2017 중국 추계 광저우 뷰티박람회 09.03-09.05



9월

■ 2017 브라질 뷰티 페어 박람회 09.09-09.12



■ 2017 콜롬비아 뷰티 앤 헬스 09.27-10.01



IBITA Major Performance 사진들









■ 2017 러시아 모스크바 인터참 10.25-10.28



10월

■ 2017 멕시코 뷰티 엑스포 10.29-10.31



■ 2017 태국 인코스메틱스 아시아 10.31-11.02



■ 2017 홍콩 코스모프로프 아시아 11.14-11.17

11월



■ 2017 사우디 헬스&뷰티 박람회 12.03-12.05

12월



IBITA Major Performance 사진들



해외박람회 문의 :
(사)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해외 마케팅팀 02-861-8084~7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IBITA 주관진행
2017년도해외유망박람회

2017년도 상/하반기 해외유망박람회

월	연번	전 시 회 명	개 최 기 간	진 행 상 황	품 목
2	1	2017 샹트페테르부르크 인터참 프로페셔널 Intercharm Professional 2017	2. 9 ~ 2. 11	참가사 모집중	뷰티종합
3	2	2017 춘계 중국 광저우 미용 박람회 China International Beauty Expo (Spring) 2017	3. 9 ~ 3. 11	KOREA-IBITA관 30개사 모집	뷰티종합
	3	2017 이태리 볼로냐 코스모프로프 Cosmoprof Worldwide Bologna 2017	3. 17 ~ 3. 20	KOREA-IBITA관 50개사 모집 '2018~2019 정부지원 IBITA 단독확정'	뷰티종합
	4	2017 멜버른 뷰티 엑스포 beauty expo melbourne 2017	3. 25 ~ 3. 26	참가사 모집중	뷰티종합
	5	2017 두바이 피부미용 전문 박람회 Dubai Derma 2017	3. 27 ~ 3. 29	KOREA-IBITA관 30개사 모집중	전문 에스테틱
4	6	2017 중국베이징 건강산업박람회 China International Health Industry Expo 2017	4. 17 ~ 4. 19	한국관 100개사 모집	종 합
	7	2017 이란 뷰티 & 클린 박람회 Iran Beauty & Clean 2017	4. 24 ~ 4. 27	KOREA-IBITA관 30개사 모집중	뷰티종합
	8	2017 터키 이스탄불 뷰티 박람회 Beauty Eurasia 2017	4. 27 ~ 4. 29	KOREA-IBITA관 25개사 모집중 '2014~2016 KOTRA지원 공동수행'	뷰티종합
	9	2017 태국 아세안 뷰티 박람회 ASEAN Beauty 2017	4. 27 ~ 4. 29	KOREA-IBITA관 20개사 모집중	뷰티종합
5	10	2017 하계 중국 상하이 국제 미용 박람회 China International Beauty Expo (Summer)2017	5. 6 ~ 5. 8	KOREA-IBITA관 30개사 모집중	뷰티종합
	11	2017 두바이 뷰티월드 Beauty World Middle East 2017	5. 14 ~ 5. 16	KOREA-IBITA관 15개사 모집중	원료, 패키징 OEM/ODM, 스파, 에스테틱
	12	2017 뉴욕 코스모팩 Cosmopack in New York 2017	5월중	참가사 모집중	화장품 용기 메이크업,네일
7	13	2017 북미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 Cosmoprof North America 2017	7. 9 ~ 7.1 1	한국관 50개사 모집 '2017~2019 정부지원 IBITA 단독확정'	뷰티종합
	14	2017 인도네시아 헤어 엑스포 Hair Expo Indonesia 2017	7. 27 ~ 7. 29	KOREA-IBITA관 15개사 모집중	헤어종합
8	15	2017 홍콩 뷰티 앤 웰니스 엑스포 Beauty & Wellness Expo 2017	8. 17 ~ 8. 21	KOREA-IBITA관 15개사 모집중	뷰티종합 B2C
	16	2017 호주 시드니 뷰티 엑스포 Beauty Expo Austraila 2017	8. 26 ~ 8. 27	KOREA-IBITA관 20개사 모집중	뷰티종합
9	17	2017 중국 추계 광저우 뷰티 박람회 China International Beauty Expo (Autumn)2017	9. 3 ~ 9. 5	KOREA-IBITA관 30개사 모집중	뷰티종합
	18	2017 브라질 뷰티 페어 박람회 Beauty Fair 2017	9. 9 ~ 9. 12	KOREA-IBITA관 15개사 모집중 '2015,2017 정부지원 IBITA 단독수행'	뷰티종합
	19	2017 상하이 아시아 뷰티 엑스포 Asia Beauty Expo 2017	9. 21 ~ 9. 23	KOREA-IBITA관 15개사 모집중	뷰티종합
	20	2017 콜롬비아 뷰티 앤 헬스 박람회 XVI belleza y salud 2017	9. 27 ~ 10. 1	KOREA-IBITA관 15개사 모집중	뷰티종합
	21	2017 중국 난징 성형 & 에스테틱 전문 박람회 CIPAE 2017	9월중	KOREA-IBITA관 15개사 모집중	피부미용,성형, 에스테틱기기
10	22	2017 나이지리아 뷰티아프리카 Beauty Africa 2017	10. 6 ~ 10. 8	KOREA-IBITA관 15개사 모집중	뷰티종합
	23	2017 중국 북경 추계 미용 박람회 International Beauty & Cosmeticsc Expo in Beijing 2017	10. 11 ~ 10. 13	KOREA-IBITA관 15개사 모집중	뷰티종합
	24	2017 카타르 도하 뷰티 쇼 Doha Beauty Show 2017	10. 19 ~ 10. 21	참가사 모집중	뷰티종합
	25	2017 카타르 베이비 앤 키즈 월드 BABY & KIDS WORLD 2017	10. 19 ~ 10. 21	참가사 모집중	뷰티종합
	26	2017 러시아 모스크바 인터참 interCHARM 2017	10. 25 ~ 10. 28	KOREA-IBITA관 10개사모집중	뷰티종합
	27	2017 멕시코 뷰티 엑스포 Expo Beauty Show 2017	10. 29 ~ 10. 31	KOREA-IBITA관 30개사 모집중 '2015~2016 KOTRA 지원 IBITA 단독수행'	뷰티종합
	28	2017 태국 방콕 인코스메틱스 아시아 in-cosmetics Asia 2017	10. 31 ~ 11. 2	KOREA-IBITA관 15개사모집중 '2013~2016년 정부지원 IBITA 단독수행'	화장품 원료, 용기
11	29	2017 터키 화장품 원료 박람회 Cosmetics & Homecare Ingredients 2017	11. 9 ~ 11. 11	KOREA-IBITA관 15개사 모집중	원료, 용기, 화장품
	30	2017 홍콩 코스모프로프 아시아 Cosmoprof Asia 2017	11. 14 ~ 11. 17	KOREA-IBITA관 50개사 모집중 '2016 KOTRA지원 공동수행'	뷰티종합
	31	2017 중국 청두 프리미엄 생활 소비재전(뷰티관) Stylish Life China 2017	11월중	KOREA-IBITA관 15개사모집중 '2016년 KOTRA IBITA 단독수행'	뷰티종합
	32	2017 인도네시아 뷰티 & 메디케어 Indobeauty & Indomedicare 2017	11. 28 ~ 11. 30	KOREA-IBITA관 15개사 모집중 '2016 KOTRA지원 단독수행'	뷰티종합, 메디컬
12	33	2017 사우디 헬스&뷰티 박람회 Saudi Health & Beauty 2017	12. 3 ~ 12. 5	KOREA-IBITA관 10개사 모집중 '2015 ~ 2016 KOTRA지원 IBITA단독수행'	뷰티종합
	34	2017 미국 라스베가스 A4M 안티에이징 전문 박람회 Las Vegas A4M Show 2017	12월중	KOREA-IBITA관 10개사 모집중	미용기기 및 화장품

IBITA
International Beauty Industry TradeAssociation

IBITA
(International Beauty Industry Trade Association)
T. (82) 2-861-8084 ~ 7 F. (82) 2-6280-3368 E-mail: ibita@ibita.or.kr
www.ibita.or.kr

더 많은 **소식**
카카오톡 옐로아이디로
확인하세요.